

언제나 단짝



글·그림 한지혜



글 · 그림 한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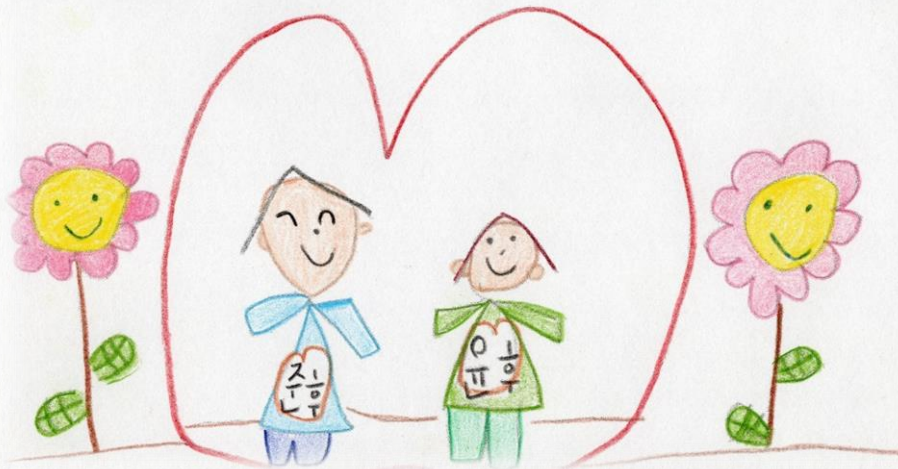
법학을 전공하고 교육학을 부전공 했다.
교육회사에 근무하기도 했고,
초등학교에서 방과후수업도 했었지만,
지금은 그림책에 관심이 많은 두 아이의 엄마이다.
그림에는 소질이 없지만,
아이들에게 추억을 남겨주고 싶어 이를 악물고 그렸다.
속표지는 7살 첫째 아들 준후가 직접 그리고 썼다.

언제나 단짝

발행일	2022년 12월 1일
지은이	한지혜 (속표지 디자인 정준후)
주 소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462라길 16, 102호
전 화	010-5292-0658
이메일	kaljihye@naver.com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관악문화재단 글빛정보도서관의 <관 1단>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언제나 단정





우리 집의 아침을 깨우는 노랫말,
준후의 책 읽는 소리에
윤후도 부스스 눈을 뜹니다.



아함 졸려...
“형아~ 책 봐?”



“형아, 우리 밥 먹고 뭐 하고 놀까?”

“슈퍼윙스 놀이 할까?”

“응! 좋아 좋아!”

“그럼 빨리 먹어”



그런데 윤후는
숟가락은 들지도 않고
재잘재잘 이야기만 하고 있네요.

“슈퍼윙스 놀이 같이 하기로 했잖아~

형아 치사해!”

“그러니까 빨리 먹으라고 했잖아~”



밥은 먹기 싫고,
빨리 놀고만 싶은 윤후는
형아를 부럽게 바라봅니다.



“형아 뭐 만들어? 나랑 같이 놀자~”

“나 바빠~호기 택배상자 만들어야 해”

밥을 다 먹은 윤후는
비행기를 차지 했지만,
준후는 벌써 다른 놀이를 하고 있네요.



하지만 각자 노는 것도 잠시,
이내 방으로 우르르 달려가
베개놀이를 시작하는 엉뚱한 형제.



“윤후야! 이제 기차놀이 하게
베개랑 쿠션 다 가지고 나와!!”
“알았어 형아! 거실로 가자!”

다시 거실에서,

내가 대장가차야!
잘 따라와!



뽀뽀~ 빨리 가세요!
대장가차~



쉴 틈 없이 놀이가 이어집니다.

보트로 갈아 타자!
출발~

꼭 잡아!
상어를
피해야 해!!

으악~!
앞에 상어야
형아~ 조심해~



“형아~이제 내가 대장 할래~

형아가 계속 대장 했잖아~”

“싫어~내가 대장이야!”

형아 미워!! 계속
형아만 대장 하고!!

윤후랑 같이
안 살고 싶어!!!!

내가 먼저 하고
이러잖아!!
ㅅㅅ

형아가 더
나빠 !!!!!

으아아아앙

헐헐헐헐



그만 싸우고 둘 다 이리 와 ~

낙성대공원 가서 킥보드 타고

아이스크림 먹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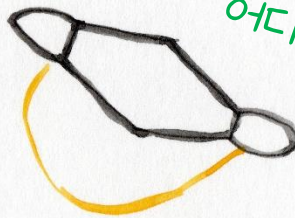
응 갈래. 훌쩍~

나도 갈 거야. 훌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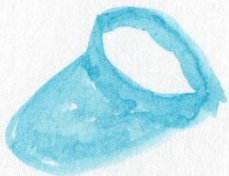
형아
무전기 챙겼어?



형아 마스크는
어디 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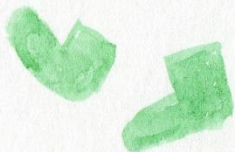
형아 물통은?



형아 내 모자는
어디 있지?



다 여기 있어~
양말 신겨줄게
이리와~



윤후야
이쪽으로 따라와~!!

응 형아~
갈게 !!!



우와 형아
개미 좀 봐~!



우와 먹이
가져가나 봐~



준후야~ 윤후야~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엄마~ 나 빵빠레
한 입만 먹으면
안~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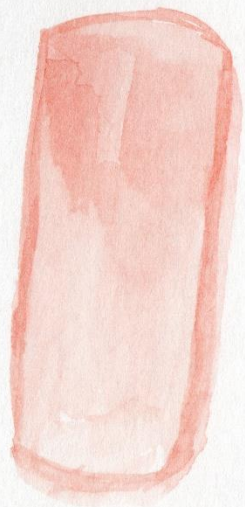
2
윤후가 좋아하는
폴라포



준후는
언제나
초코



아빠~ 나도
빵빠레 한 입만~~



하루 종일 신나게 놀고,
열심히 싸운 준후와 윤후.
자는 모습도 똑같은 두 형제는
떨 수 없는 단짝입니다.

새로 나온 햄버거가 맛있을 때,
친구랑 싸워서 속상할 때,
재미있는 만화책을 발견 했을 때,

서로를 떠올리는
영원한 단짝이 되길 바라며...

2022년 가을,
엄마가 쓰고 그린다.



웃어도, 울어도, 언제나 단짝

